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meimuchou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렌트는 역사 개념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정치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역사는 사라진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일이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언과 재심의 의미를 비추는 역사에 대한 아렌트의 사유 방식은 정치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아렌트는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인 역사주의와 진보주의를 비판했다. 순수한 객관성으로서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환상과 발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개념은 서로 이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렌트는 그 효과가 서로 동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주의는 객관성의 이상화를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발견된 사료를 바탕으로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엄격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 형식으로서 역사기술을 추구한다. 이는 자연과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역사를 정신과학적으로 정의된 학문으로 간주하고 이해와 감정이입 등의 방법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과학의 역할이 자료, 대상을 찾는 일이라면 예술의 역할은 그 작업을 거쳐 인식된 것을 다시 형상화하는 것, 곧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일이다. 이러한 ㉠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간 분리 전략은 20세기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벤야민은 이들의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피지배 계층에 놓인 자들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유물론적 역사학을 주창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인식은 훗날 아렌트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역사주의자들은 흔히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과거를 기술할 뿐, 과거를 평가하거나 교훈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아렌트에 따르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판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배자의 시각에서 감정이입이 불가피해진다. 역사주의를 따르는 역사가들은 아렌트에게 ‘근대적 역사가’로 불린다.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거를 관찰하려는 ‘자기 삭제적 시도’는 과학적 객관성으로부터 비롯된 태도이다. 그들이 말하듯이 ‘순수한 시각’은 자신을 투명한 관찰자로 설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역사기술을 위해 발견된 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필연적으로 역사에 개입하게 된다. 아렌트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여 근대의 역사가가 추구한 객관성이 사실 ‘비차별’과 ‘비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비차별, 즉 칭찬과 비난은 쉽게 억제할 수 있어도 소재 선택만으로도 개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사주의는 각 시대가 자율적 가치를 지니며, 시간에 따라 연쇄적 발전 과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진보주의에 대항한다. 한편 아렌트는 시대가 갖는 개별적 시간은 공허하다고 보았다.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은 텅 빈 시간을 사실의 더미로 채우기에 점진적이다. 또한 진보주의의 시간도 이와 못지않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선으로 환원된 것인데 아렌트는 이를 “저축 금고와 대규모 신용기관의 시간”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진보주의는 역사가 시기마다 주어진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쇄적인 단계를 거쳐나간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가는 역사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대변하는 철학자와 같은 존재이다. 아렌트는 진보주의적 발전 과정에 근대의 자연 개념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에 의해 추동된다. 노동력은 생산력을 수반하는데 이들의 근원은 자연의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총체적 법칙’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사회 부적응자 내지 패배자로 각인된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추방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이 역사의 진정한 개념이라면 시대가 변해도 법칙에서 파생된 운동성은 지속될 발전 단계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에게 진정한 역사란 역사가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복수성(Plurality)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역사 서술은 정치적 판단과 복수적 관점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과학의 방법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
  - ② 역사기술 과정에서 형상화된 자료도 발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심판자로서 동시대인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 ④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다.
  - ⑤ 수집된 사료의 내용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이야기 형식에 담아내는 과정을 목표로 설정한다.

2. 아렌트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본질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 ② 패배자의 시각보다는 승리자의 시각에서 피지배 계층을 조명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다.
- ③ 실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수집에 근거해서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 ④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소재 선택 과정이 필요하다.
- ⑤ 근대의 역사가는 비개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

3. <보기>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복수성은 모든 역사의 진리적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우리의 영역에서 추방할 이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순수한 시각은 이상적 아이디어지만 수많은 역사가의 주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역사가는 한 사건에 대한 여러 주장을 조화시킬 때 특정 관점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역사의 발전이란 미래로의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예측 불가능의 창조적 변혁이다. 벤야민이 말한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을 보라. 과거의 억압된 목소리가 현재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면, 이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그 자체이다. 이야기가 단일한 구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연유한다.

- ① 복수성과 정치적 판단을 강조하여 역사 서술이 특정 집단의 승리만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겠군.
- ② 역사주의가 지향하는 순수한 객관성이 복수적 관점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③ 객관적 사료 수집과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존중을 역사 서술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④ 시간에 따른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목적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고 진보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⑤ 역사 개념을 복수성을 반영한 동적 과정으로 변형하고 역사가의 중립적 태도가 승리자 중심 서술로 귀결될 위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고 진보주의의 견해와 상충하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나는 화숙이 비석의 연월 표기 방식에 대해 논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홍범의 의미'를 들며 주장한 것은 경전에 근거가 없고 선유의 설일 뿐이다. 공씨는 '태서'에서는 '년'이라 하고 '홍범'에서는 '사'라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공씨의 설을 그대로 따르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화숙이 이 잘못된 설을 근거로 삼으니, 그 증거가 믿을 만하지 않다. '서경'의 '홍범'에서 '십유삼사'라고 한 것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한 후 연호와 제사의 명칭을 아직 고치지 못했거나, 사관이 기록하면서 일부는 수정하고 일부는 수정하지 못해 '태서'와 '홍범'의 표기가 달라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자의 말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공씨는 "기자가 '사'라고 한 것은 근본을 잊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만으로도 그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후대 학자들이 공씨의 설을 따르다가 그 부당함을 깨닫고는 "사관이 기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을 바꾸었는데, 이는 논리가 부족하다. 만약 기자가 상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주나라의 것을 쓰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주나라 무왕의 세수를 기록했겠는가. 이는 실제로 주나라의 것을 쓰면서 명칭만 숨긴 것이니, 이렇게 했다면 "상나라를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모순이다.

또한 현대에 송정이나 강희 같은 연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청나라의 연수에 명나라의 명칭을 빌려 쓰겠는가? 이는 이치에 어긋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화숙은 어찌서 경전의 의미에 직접 의거하지 않고 이런 예를 인용하는가.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주나라의 연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상나라 주왕의 이미 끊어진 세수를 억지로 가져와 주나라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홍범에 대한 해석을 보면 상나라도 주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기자 같은 분이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화숙이 "《강목》에서 천우는 그들이 스스로 일컫는 것을 따라 쓴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진왕과 기왕은 각각 한 지방을 차지하여 당나라가 망한 후에도 당나라의 연호인 천우를 사용했다. 《강목》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사용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왜 천우를 크게 써서 왕통을 밝히지 않았겠는가. 이는 왕통이 이미 끊어져 보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당나라가 망한 후에도 당나라의 연호를 썼으니, 오늘날 사람들도 명나라의 연호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당나라 연호를 그대로 쓸 만했다면 왕통을 밝혀야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낮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송정 연호를 쓰는 자들은 주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화숙이 "이는 희생양마저 함께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논어》의 본뜻과 같겠는가. 공자가 자공을 책망한 이유는 예가 폐지되었어도 양은 남아 있어서 그것마저 없애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나라의 희생양이 어디에 있는가.

신하로서 군주와 부모가 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

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연수를 늘려 군주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의리를 삼은 자는 없다. 이는 그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군주와 부모를 위한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인보다 뛰어난 의리를 세웠다고 자부하며 소원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친밀한 자에게는 행하지 않는가.

옛날 도잡은 진나라의 충신으로, 진나라가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 그러나 망한 진나라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은 없다. 주자는 《강목》을 편찬할 때도 왕통을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숭정 연호를 쓰고자 하는 자는 도잡처럼 하거나 주자처럼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의 의리를 무시하고 뛰어넘으려 하니, 이는 미혹함만 드러낼 뿐이다. 갑자만 쓰거나 우리 조정의 연호만 기록하는 것은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도잡과 주자를 본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선대의 의리를 쓸모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도잡은 진나라를 폄하한 셈이고, 주자는 군신의 의리를 쓸모없게 한 셈이다. 내가 생각하는 의리는 도잡이나 주자와 같다. 그들의 의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더라도 한이 없다.

게다가 '선대의 의리'를 내세우니, 어찌 그리도 경솔한가. 우리 선조 반남 선생은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온 때를 만났으니,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다. 선생이 송나라의 연호를 그대로 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숭정 연호를 쓰는 것이 이보다 나은가. 요즘 서로 쓰는 바가 달라 의리상 저쪽을 피하고 우리 쪽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군자가 할 말이 아니다. 옳은 일이라면 누구의 것이든 취하고, 그른 일이라면 누구의 것이든 버려야 한다. 군자는 이치의 극진함을 다할 뿐이다. 이치를 벗어난 지나친 행위는 평민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 화숙이 기년을 논하여 아질에게 보인 것에 대해 변론하다 -

#### 4. 무왕과 기자의 사례를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옛사람의 예를 통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화숙의 주장을 선별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 ② 기자가 주나라의 연호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연호 사용 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③ 무왕과 기자의 사례를 통해 화숙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낸다.
- ④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군신이 당대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의리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기자의 행동을 본받아 망한 왕조의 연호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 5.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경전의 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도잡은 진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는 그의 개인적 선택이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리를 지킬 수 있다. 또한 망한 왕조의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선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대의 의리를 지키는 것과 현재의 현실적 필요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

- 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경전 해석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달리한다.
- ② 도잡의 행위를 개인적 선택으로 본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달리한다.
- ③ 망한 왕조의 연호 사용을 선대에 대한 존경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달리한다.
- ④ 국가의 통치 구조 속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같이한다.
- ⑤ <보기>와 ㉠는 모두 선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다.

#### 4.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M 학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론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M 학자는 역사 기록에서 연호의 사용 방식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여러 왕조의 연호가 혼용된 기록들을 분석하며, 연호의 사용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씨의 해석을 재평가하며, '태서'와 '홍범'에서의 연호 표기 차이는 기자가 상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호의 혼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보 기2>—

- ㄱ. 기자가 상나라의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면, 주나라의 세수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 ㄴ. 공씨의 해석은 경전에 대한 열린 해석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를 재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ㄷ. 연호의 사용은 정치적 의도보다 문화적 연속성을 반영하지만 연호의 혼용은 사관의 실수이므로 문화적 정체성과 연관이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 속 배경이나 풍경과 같은 물리적 공간은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로서 작품 내 세계관을 드러낸다. 서술된 공간은 작가의 사유 방식에 따라 배치된 서사의 실제적 무대이다. 또한 문학 텍스트 속 인물들은 동일한 공간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여 인식적 장소라는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물이 능동적으로 서술하는 공간, 즉 장소의 성격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푸코는 공간을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시각에 반대하여 공간을 역동적이고 변증법적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문학 텍스트에 적용하면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질적이고 반질서적 장소인 헤테로토피아는 상상 속의 신화적 공간인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구현된 형태이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서 정상성을 벗어나는 장소로, 다른 모든 공간에 맞서 그것들은 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헤테로토피아가 문학 텍스트에 구현된다면 그 수사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난해한 소설, 환상 시가 유행하는 경향은 헤테로토피아의 기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개인 내지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고 이런 구성 작업을 ‘헤테로토피아’라 불렀다. 구성 원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지 않는 사회는 없다. 둘째, 동일한 헤테로토피아라 하더라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양립 불가능한 장소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 넷째, 상식에서 벗어난 비일상적 시간인 ‘헤테로크로니’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고립성과 동시에 특정한 접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세 편의 중편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을 묶어낸 책이다. 전체 서사의 중심인물은 영혜이며, 각 중편소설에서는 영혜의 남편, 형부, 언니가 화자로 등장한다. 중편 『채식주의자』는 육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영혜와 그에 따른 남편의 고뇌를, 『몽고반점』은 형부와 영혜가 벌이는 선정적인 성행위를, 『나무 불꽃』은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고 정신병원에서 나무가 되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다룬다.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과 자연이 가부장적 사회와 육식 중심의 문화 속에서 동일한 억압을 받는다고 본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가했으며, 딸의 입을 고기를 강제로 넣기도 한다. 태초부터 인류가 생존을 위해 동물을 섭생하고 자연을 훼손했는데 이런 의식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신분석학은 영혜의 행동을 분열된 자아와 억압된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한다. 영혜에게 어린 시절 폭력 경험은 육식에 대한 강렬한 혐오로 일으켰고, 정신병원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행위는 현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욕망을 나타내며, 형부와의 성도착적 행위는 정신분열 증세의 일종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섭생을 해야만 하는 본질적 존재로 보고, 영혜의 행동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령 꿈 속에서 동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인간의 폭력적 섭생을 고발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에피소드에 주목한 나머지 세편

의 중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페미니즘 관점은 영혜와 형부의 관계 같은 서사적 층위를 해석하지 못하고,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영혜의 저항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으며, 동물론적 관점은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행위는 자발적인 헤테로토피아 만들기이다. 영혜는 형부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몸에 식물을 그리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육식으로 성장한 몸 대신 ‘식물성 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는 작업이 주변의 방해로 인해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영혜는 정신병원에서 그동안 먹었던 동물들이, 그것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고 뱃속에서 올라오는 몸을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유토피아적 몸’을 상상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처럼 공간 비평 관점에서 보면 영혜는 규범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적극적 인물로 재평가된다.

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리적 공간은 서사적 무대의 구성요소이다.
- ② 배경이나 풍경과 같은 장소는 작가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다.
- ③ 유토피아는 헤테로토피아와 달리 비현실적 공간에 해당한다.
- ④ 페미니즘 관점과 동물론적 관점은 모두 폭력성의 원인을 육식과 연관 짓는다.
- ⑤ 『채식주의자』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일부는 소설 속 영혜를 소극적 인물로 간주한다.

8. 푸코가 동의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의 신화를 해체하기 위해 존재한다.
- ㄴ. 모든 사회는 각자 고유한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다.
- ㄷ. 서로 다른 헤테로크로니가 하나의 헤테로토피아 내부에 공존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 9.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t;보 기&gt;

-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앙상한 쇠골과 여윈 젖가슴, 연갈색 유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채식주의자 中』

- (그러진 꽃을 바라보며) 쉽게 지워지진 않을 거야. 몇 차례 씻어내야 완전히……” 그의 말을 자르며 그녀가 말했다. “안 지워지면 좋겠어요.” “…… 지우고 싶지 않아서 씻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꿈은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

(중략)

형부와의 성행위를 마치고 난 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반짝이는 황금빛 젖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잎이 분분히 박힌 가랑이를 활짝 벌렸다. 흡사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려는 것 같았다.

『몽고반점 中』

-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응.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중략)

서쪽 북도의 저 자리에서 물구나무서 있는 기괴한 여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헤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어깨로 땅을 짚고 거꾸로 선 영헤의 얼굴은 피가 물려 새빨갰다.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영헤는 벌떡 일어서서 창을 가리켰다. 모두, 모두 다 물구나무서 있어.

『나무 불꽃 中』

- ① 영헤가 상의를 탈의하는 방식으로 벤치에 앉는 장면이 육식으로 성장한 몸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겠군.
- ② 형부의 작업실에서 영헤가 강제로 전신에 꽃을 그려 식물성 몸을 얻게 되었다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③ 형부와 선정적인 성행위를 끝낸 영헤가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는 것을 식물성 몸을 유토피아적 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겠군.
- ④ 영헤가 자신의 몸이 나무가 되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상상을 하는 장면을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는 시도로 간주하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⑤ 영헤가 자발적으로 물구나무서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자신의 한계로 인해 실패한 식물성 몸 찾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에서 개별론은 세계에 실체가 있고, 그것이 가지는 속성이 보편자가 아닌 개별자라는 이론이다. 가령 “이 사과는 빨갱다.”에서 이 사과의 빨갱 속성은 다른 빨갱 대상들과는 구별되는 이 사과만의 속성이다. 개별론은 이러한 속성이 개별자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은 오직 하나의 실체에 귀속된다고 간주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별적 존재인 사과의 빨갱 속성과 토마토의 빨갱 속성은 그 본질적 특성은 서로 동일하지만 물리적 특성이 다를 뿐이다.

개별론은 실재론이나 유명론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속성은 보편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실재론과 구별되고, 세계에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명론과 차이가 있다. 개별론은 명제를 참으로 이끄는 사실 내지 사태가 실체와 보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 대해 개별적 속성이 진리의 일차적 과제를 잘 수행한다면 보편자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반문한다. 또한 문장을 진리로 만드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실체들의 집합이라는 시각에 관해서는 동일한 속성에 서로 다른 실체들의 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대응한다.

개별론에 대해서는 ‘형식적 속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형식적 속성의 일종인 유사성이나 부분-전체 관계가 그러하다. 예컨대 “태양계가 태양과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와 “한국의 법은 형법과 민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서로 다른 범주의 대상들에 부분-전체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귀속한다. 이러한 속성은 물질적 속성 또는 심적 속성과 같은 특정한 범주의 대상에만 귀속될 수 있는 비형식적 속성과는 범주를 달리한다. “이 사과가 빨갱다.”가 참인 이유가 이 사과에 빨갱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면 “이 사과와 토마토가 유사하다.”가 참인 이유는 이 사과와 이 토마토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속성들은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이다. 하지만 개별론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형식적 속성을 수용할 경우, 그 존재가 ‘무한 퇴행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어링은 형식적 속성에 의한 무한 퇴행이 철학 본래의 향도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과 동일하다.”는 참인데 그 이유는 철수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철수의 집합이 철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수의 집합 또한 세계에 있는 대상이므로 철수의 집합이 있으면 철수의 집합에 대한 집합이 있어야 한다. 퇴행 과정이 무한히 지속되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어링이 지적한 내용이다. 카이네넨은 이 쟁점에 대해 어떤 무한 퇴행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철수의 존재는 철수의 집합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존재를 요구할 뿐이다. 새로운 존재자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지만 설명을 통하지 않는 퇴행은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카 라이넨은 형식적 속성이 사실과 같다고 주장한다.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형식적 속성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형식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이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그 형식적 속성은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형식적 속성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은 요구와 달리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이다.

10. 윗글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편자의 속성은 두 대상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 ② 서로 다른 개별적 속성은 그 본질적 특징이 같을 수 있다.
- ③ 개별론은 보편자가 가지는 속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④ 실재론과 유명론은 모두 실체가 세계의 부분을 이룬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⑤ 심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은 모두 비형식적 속성에 포함되는 개별자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서로 경쟁하는 가설이 있을 때 가설의 논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증거들은 일부 가설이 지닌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래 <표>는 증거 ①, ②, ③가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 실재론, 유명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단, 세 가설 이외에 다른 경쟁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가정한다.)

가설	①	②	①, ②
개별론	강화	강화	변화 없음
실재론	약화	약화	변화 없음
유명론	약화	변화 없음	X

<표>

- ① ①에는 “동일한 실체들의 집합에 서로 다른 속성들이 대응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②에는 “개별적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실체는 보편자가 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③에는 “철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문장이나 명제가 참인 이유를 정당화하는 일이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①이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②가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보다 크거나 같다.
- ⑤ ③이 개별론과 실재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증거라면 X는 강화이거나 약화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철수는 개별자이다.”라는 문장에 관하여 A는 “철수가 개별자이다.”라는 사실을, B는 A가 참이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속성을, C는 B가 개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 ㄱ. A는 B로, B는 C로 설명되는 방식은 설명을 뒤로 미루는 무한 퇴행에 해당하겠군.
- ㄴ. C는 B를, B는 A를 요구할 뿐이므로 설명을 통하지 않는 퇴행에 해당하겠군.
- ㄷ. A는 B에 의해 설명되고, B는 C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 무한 퇴행은 철학의 향도적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겠군.
- ㄹ. B는 A의, C는 B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지만 A는 B를 통해 설명되지 않고, B는 C를 통해 설명되지 않으므로 무한 퇴행이 아니겠군.

- ① 어링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카이네넨은 ㄴ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③ 하카라이넨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어링과 카이네넨은 모두 ㄹ에 동의하겠군.
- ⑤ 카이네넨과 하카라이넨은 모두 ㄱ에 동의하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의 『국가』에는 어둠에 잠식된 동굴을 배경으로, 그곳에는 한평생 동굴의 빈 벽만을 바라보도록 사지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벽 위로 비치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림자들은 사물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재’라 믿는다. 여기서 내던져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한낱 ‘이미지’인 것은 아닌가?”하는 고전적인 물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가상’일 뿐이라는 염려가 깃들어 있다. 이른바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이미지 개념은 실재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그것은 결코 실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철학의 제1 과제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고차원적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이 고스란히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죄수로 묘사되곤 하는데 사르트르와 들뢰즈가 말했듯이, 어쩌면 그들의 손과 발을 얽매고 있던 사슬과 수갑 또한 이미지에 관한 ‘굴절된 편견’ 아니었을까?

사르트르와 들뢰즈는 고전적인 철학의 소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플라톤이 조성한 무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르트르는 플라톤적 체계가 가지는 선입관을 비판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의식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의식은 곧바로 자신의 지향적 대상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체계에서는 이데아로부터 파생된 모사물과 그렇지 못한 허상을 구별하며, 이미지만 바로 부적격의 사본으로서 허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결코 사물적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지금 너의 앞에 놓여있는 종잇장과 상상을 통해 떠올린 종이장을 비교하라”고 언급하면서 지각과 상상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지각의 대상을 ‘즉자적 존재’로, 상상의 대상을 ‘대자적 존재’로 명명한다. 즉자적 존재와 달리 대자적 존재는 우리가 종잇장을 상상하면 그제서야 나타난다. 의식의 자발성으로 인해 상상의 대상은 의식이 그것을 떠올리는 한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요컨대 사르트르에게 의식이란 외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의식의 본질은 대상을 지향하는 작용인 것이다. 지향적 대상과 작용 사이에는 어떠한 매개도 요구되지 않는다. 사르트르에게 이미지는 인식과 대상 사이의 매개적 표상이 아닌 의식의지향적 활동성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동굴 벽의 그림자들이 비실재적인 이유가 플라톤의 설명에서는 그 그림자들이 모방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라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비실재성은 의식의 의해 구성된 것이다. 지각이 실재와, 상상은 비실재와 관련한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플라톤에게서 이미지가 비실재성을 가지는 열등한 사물이었던 이유는 그가 상상적 대상을 지각적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네마』라는 저작에서 들뢰즈는 플라톤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미지 개념을 거부하고,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상을 새롭게 구축했다.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이른바 ‘플라톤주의의 전복’은 모방에 대한 원본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사물과 달리 허상적 이미지에 더 이상 이데아, 즉 원형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플라톤적 방식

에서 복사물의 복사물은 아이디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다. 들뢰즈의 저서 『플라톤과 시뮬라크르』에서 그는 “각각의 동굴 뒤에는 열려져 있는 그리고 보다 깊은 다른 동굴이, 각각의 표면 아래에는 보다 넓고 낮설고 풍부한 지하 세계가, 그리고 모든 밑바닥, 모든 정초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들뢰즈의 이러한 ‘무한히 증식하는 동굴 모델’에 의거한다면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은 그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지워지게 된다. 벽면에 어른거리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진 얇은 층을 통과하여 동굴의 바깥으로 기어 나온다. 들뢰즈는 이 모델에 근거하여 영화 또한 더 이상 세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실재적 사물의 지위를 얻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러한 주장이 베르그손의 철학을 기초적인 토대로 하면서도 정작 베르그손의 철학에서 영화는 운동과 유사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죄수들은 일평생 벽에 비친 것들이 그림자인지 실재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
- ② 플라톤은 굴절된 편견에서 벗어나면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가 보기에 『국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실재가 아니라고 인지했다더라도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 ④ 사르트르는 플라톤 체계 속에서 지각과 상상의 본성상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고 보았다.
- ⑤ 들뢰즈는 실재와 허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기에 철학은 이제 아이디어를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 14. 윗글을 바탕으로 사르트르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자적 존재는 의식 과정보다 앞서서 실재적으로 존재한다.
- ②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사라지게 된다.
- ③ 대자적 존재는 즉자적 존재와 달리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 ④ 비실재성은 지각의 대상뿐만 아니라 상상의 대상에서도 포착된다.
- ⑤ 지각과 상상은 의식의 작용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 1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들뢰즈가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베르그손에 따르면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 위의 운동은 한낱 환영에 불과하다. 관객들은 초당 24프레임의 그림들이 차례로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공간 속의 위치들이나 시간 속의 여러 순간들만으로는 운동을 재구성할 수 없다. 제아무리 여러 순간들을 조밀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역동성도 가지지 않는 한낱 연속적이고 추상적인 시간일 뿐이다. 결국 인위적 수단은 반드시 인위적 결과를창출하게 되는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이러한 환영의 재생산은 결코 환영의 교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① 환영의 재생산은 특정 맥락에서 환영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② 수단이 인위적이라고 해서 결과도 인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③ 스크린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보다 영화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④ 공간 속의 위치 또는 시간 속의 여러 순간의 배열들이 동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⑤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이 정지된 그림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질 지라도 우리가 스크린으로부터 운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 확인 사항

- meimuchou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